

이슈 분석

대학 구조개혁과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전재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

I. 논의의 배경

1.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제도는 그 국가의 다양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경제성장을 단기간에 이루었는데 그 바탕에는 우리 민족의 교육열과 산업발전에 적합한 교육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이미 인구 구성의 변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교육부, 2014),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전망되고, 베이비붐 세대들의 대량은퇴에 따른 노동력 부족, 숙련기술의 단절 등으로 인한 국가 성장 동력의 약화도 우려된다(고용노동부, 2014).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따른 주력 산업 환경의 변화는 고등기술인력의 전공 분야별, 또는 숙련도에 따른 인력 수급시장에 급격한 비대칭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학업을 마친 고등기술인력의 일부는 취업이 어렵고, 숙련된 고급 인력은 법적으로 정년연장을 고려할 정도로 수급 균형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교육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고등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미래 산업사회의 발전 단계를 예측하고, 이에 적합하도록 국가의 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교육부는 2014년 1월 29일에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서 4월부터는 구조개혁을 진행할 대학 평가지표에 관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9월 30일과 11월 11일에 각각 <대학 구

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와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앞으로 교육부는 다시 의견 수렴을 거쳐서 11월 중으로 제 1주기(2014년~2016년)에 대한 평가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밝힌 방안과 평가지표 안을 보면 대학교육의 총량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고, 산업별 수요 예측에 근거한 인력 양성과 대학 기능의 특성화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이며 따라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전문대학의 위상

전문대학은 1950년대 초급대학으로 출발하여 전문학교를 거쳐 1979년 전문대학으로 승격·개편된 이후, 520여만 명의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국가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교육부, 2013). 현재 전문대학들의 수는 <표 1>에서 보듯이 전국적으로 137개교이며, 이중 국공립이 8개교로 5.8%를, 사립이 129개교로 94.2%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 정원은 472,894명 중에서 8,098명이 국공립으로 1.7%이며, 대부분인 98.3%가 사립전문대학 학생이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4). 즉, 전문대학은 지금까지 현장 실무 분야에 특화된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설립 형태가 대부분 사립대학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지역별 전문대학 수 및 학생정원(2014학년도)

(단위: 개교,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총복
대학 수	국공립	-	-	-	-	-	-	1	1	1
	사립	9	9	7	3	6	4	31	8	4
	계	9	9	7	3	6	4	32	9	5
정원	국공립	-	-	-	-	-	-	490	973	1001
	사립	47,719	33,559	37,385	15,487	17,944	19,865	141,168	13,632	15,348
	계	47,719	33,559	37,385	15,487	17,944	19,865	141,658	14,605	16,349
구분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제주	계
대학 수	국공립	1	-	-	1	1	2	-	-	8
	사립	5	1	8	8	15	10	2	2	129
	계	6	1	8	9	16	12	2	2	137

<표 계속>

이슈 분석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정원	국공립	1,155	-	-	1,538	996	1,945	-	-	8,098
	사립	15,746	3,759	18,043	20,057	33,583	21,080	7,735	7,686	464,795
	계	16,901	3,759	18,043	21,595	34,579	23,025	7,735	7,686	472,894

출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cce.or.kr/college/college_operation.jsp)

또한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고등교육 시장에서 전문대학은 대학 수 비율로는 40.4%, 입학정원 기준으로는 32.0%를 차지하면서 산업인력을 배출해 왔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4).

표 2.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학교 수 및 입학정원 분포(2014학년도)

(단위: 개교, 명, %)

구분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계
대학 수 (비율)	137 (40.4)	199 (58.7)	2 (0.6)	1 (0.3)	339 (100.0)
입학정원 (비율)	191,787 (32.0)	344,124 (57.5)	2,815 (0.5)	59,700 (10.0)	598,426 (100.0)

출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cce.or.kr/college/college_present.jsp)

<표 3>은 전문대학 신입생들의 부모 중에서 학력이 중졸 이하인 부모의 비중을 일반 4년제 대학의 부모와 비교한 것이다. 이 결과에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중졸 이하인 부모의 비중 차이는 아버지가 15.7%p, 어머니는 4.4%p로 전문대학이 더 높은 실정이다. 또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구성비는 2012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기준으로 소득분위 3분위 이하의 학생 비중이 전문대학이 54.0%, 4년제 대학이 38.9%로, 전문대학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15.1%p나 더 많이 공부하고 있다.

표 3. 대학 신입생들의 중졸 이하 부모 학력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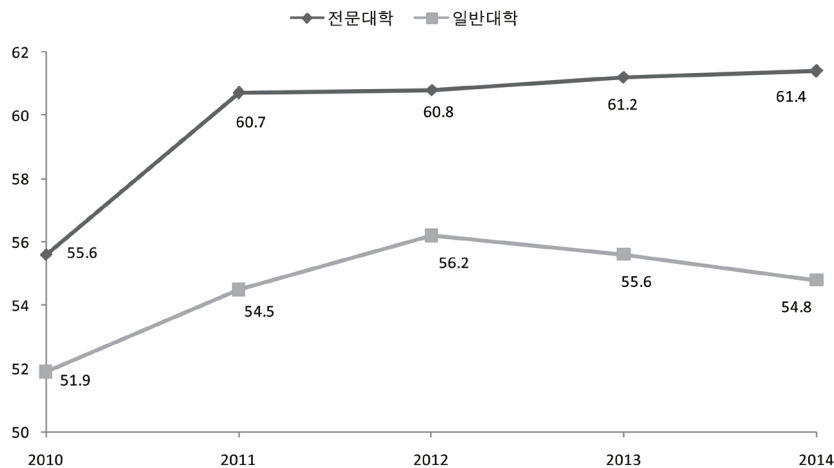
구분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부	38.3	22.6
모	23.4	19.0

출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4)

[그림 1]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취업률 추세를 살펴보면 전문대학 졸업생이 일반대학보다 더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문대학이 그동안 취업 중심의 고등직업교육을 수행하여 국가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전문기능인을 적시에 양성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대학의 교육체계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과제인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도 동시에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4).

그림 1.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취업률 추이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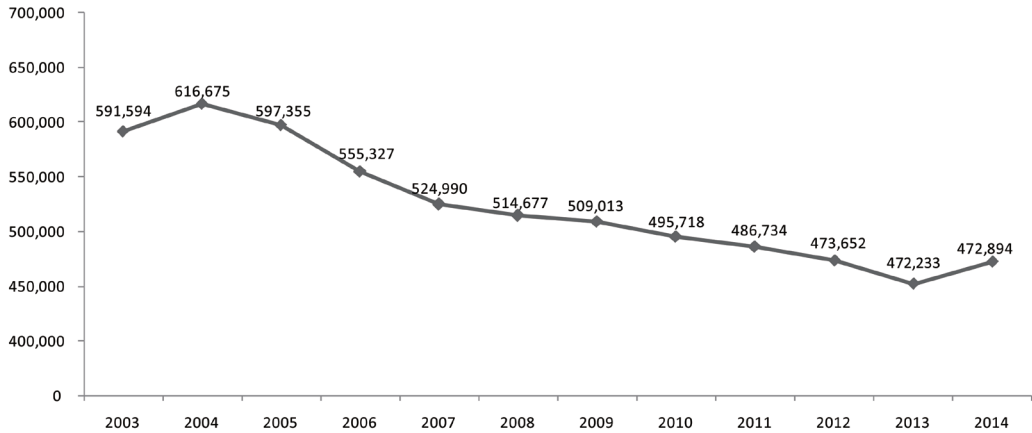


출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4)

이와 같이 전문대학이 산업사회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기능인을 배출하여 왔음에도 전문대학 학생의 정원은 [그림 2]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2. 연도별 전문대학의 학생 정원 추이

(단위: 명)



출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4)

II. 전문대학 구조개혁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1. 법적·제도적인 환경

대학의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널리 이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의도했던 만큼 합리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적인 근거가 아닌, 재정 지원을 매개로 한 정책적인 접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현실적으로 입학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 결과는 해당 대학의 생존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위하여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김희정의원, 2014)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 법률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 평가 및 대학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대학 구조개혁의 계획 및 실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먼저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조개혁이 진행되어야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 행정에 관련한 교육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교육부에서 전문대학을 정책적으로 전담하는 부서는 “전문대학정책과”의 1개과 10여 명이다. 과거에는 전문대학을 직업전문학교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명실상부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현재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전문대학의 비중이 대학 수 기준 41.2%, 입학정원 기준 37.5%인 실정에 비추어 보면, 교육부에서 전문대학을 전담하는 규모는 최소한 1국(관)에 3과로 개편이 되어야 전문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이승우, 2014).

2. 전문대학의 꾸준한 자구 노력

그동안 정부에서 꾸준히 진행해 온 대학 경쟁력 강화 노력에 따른 결과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표 4>에서 고등교육기관 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전문대학은 총 18개교(11.4%)가 폐교되거나 통합되었는데, 동일한 기간에 일반대학은 총 27개교(16.8%)가 오히려 증가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2014).

표 4. 2000학년도 이후의 고등교육기관의 수 변화

(단위: 개교)

구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기타
2013	433	188	10	2	43	1,157	140	50
2012	432	189	10	2	43	1,134	142	46
2011	434	183	10	9	41	1,126	147	44
2010	411	179	10	11	40	1,098	145	26
2009	407	177	10	12	38	1,077	146	24
2008	405	174	10	13	37	1,018	147	24
2007	408	175	11	14	36	1,006	148	24
2006	412	175	11	14	36	1,015	152	24
2005	419	173	11	18	34	1,017	158	25
2004	411	171	11	18	28	1,002	158	25
2003	405	169	11	19	25	985	158	23
2002	376	163	11	19	18	927	159	6
2001	374	162	11	19	18	887	158	6
2000	372	161	11	19	17	812	158	6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2014)

이슈 분석

또한, 동일한 기간의 입학 정원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전문대학은 90,428명(28.4%)을 감축하였는데, 4년제 대학은 오히려 44,116명(13.7%)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입학 정원 감축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는 교육부의 구조개혁 정책이 고등교육기관들 사이에서도 다르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2014).

표 5. 2000학년도 이후의 고등교육기관 입학 정원의 변화

(단위: 명)

구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기타
2013	788,994	365,515	3,892	2,944	126,860	126,860	227,707	62,076
2012	817,142	372,941	3,923	2,718	126,116	126,116	238,952	72,492
2011	832,631	361,686	4,395	15,582	126,872	126,872	249,693	74,403
2010	817,225	358,511	4,862	17,572	126,958	126,958	249,144	60,178
2009	791,025	347,750	5,234	19,396	120,088	120,088	242,525	56,032
2008	786,003	342,916	5,459	22,374	113,371	113,371	249,291	52,592
2007	786,757	342,250	5,741	22,304	113,956	113,956	255,395	47,111
2006	775,605	335,581	6,235	22,061	110,912	110,912	254,433	46,383
2005	769,034	326,284	6,188	28,197	108,255	108,255	251,283	48,827
2004	773,741	329,509	5,783	28,444	103,257	103,257	259,183	47,566
2003	787,564	321,116	5,166	29,720	104,488	104,488	275,318	51,756
2002	819,516	320,534	4,971	31,896	101,837	101,837	311,304	48,510
2001	839,516	327,031	4,959	33,870	99,544	99,544	322,687	51,425
2000	819,779	321,399	5,075	33,240	94,079	94,079	318,135	47,85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2014)

더구나 전문대학은 이미 2014학년도에 특성화사업 선정대학 77개교 및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15개교의 정원 감축 등을 통하여 구조개혁 제 1주기 정원 감축 목표의 약 88%를 달성한 상황이다. 그리고 2014학년도 기준 137개 전문대학 중 44개 대학은 아직 정원 감축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를 통하여 제 1주기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대학의 구조개혁만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유보되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기반을 둔 기관평가인증제를 4년차로 시행 중인데, 이 제도는 구조개혁 평가지표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대하여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의 목적과 취

지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무리한 구조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고등교육기관을 포괄하는 구조개혁

고등교육 인력은 교육부로부터 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산업현장에 적시에 고급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여러 정부기관들이 다양한 고등직업교육/직업훈련 정책을 도입하면서 인력양성 체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종류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폴리텍대학(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같은 원격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사내대학, 대학원대학, 전공대학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2014). 이외에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치단체 등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폴리텍대학은 별도로 학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기존에 교육을 제공하던 전문 분야가 아닌 서비스 분야로 그 교육 기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고교 3년 과정과 전문대학 2년 과정을 통합한 5년제 고등전문대학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더구나 전문대학들이 그동안 특성화사업 등을 통하여 현대 산업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취업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특화된 학과들의 교육과정을, 학문과 연구 중심을 추구해 오던 일반 4년제 대학들이 답습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교육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2014년 10월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간한 <전문대학 10년의 변화와 박근혜정부 전문대학 정책 진단> 자료집에 따르면 내년에 전문대학 학과를 설치하는 4년제 대학은 108개교로 학과는 303개에 이르는 상황이다.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은 그 근본 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앞서 보았듯이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있으므로 이들 교육기관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적정한 규모의 전문기술인의 양성 체계가 완성될 것이다.

4.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율적 배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예산은 한정된 반면, 이를 사용하는 교육기관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별 학생 수는 <표 6>과 같은데, 2013학년도 기준으로 전문대학의 학생 수(757,721명)는 전체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3,709,734명)의 20.4%를 차지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2014). 참고로 2011학년도의 경우에는 20.8%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고등교육기관 학교급별 학생 정원 수 비교

(단위: 명)

구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기타
2013	3,709,734	2,120,296	17,500	76,377	329,822	757,721	408,018
2012	3,728,802	2,103,958	18,789	95,533	329,544	769,888	411,090
2011	3,735,706	2,065,451	20,241	122,916	329,933	776,738	420,427
2010	3,644,158	2,028,841	21,618	133,736	316,633	767,087	376,263
2009	3,591,088	1,984,043	22,879	143,368	306,471	760,929	373,39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2014)

이에 비하여 전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규모와 이 중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금액과 비율은 <표 7>과 같다. 2011학년도 기준으로 전문대학은 전체 정부 지원금의 7.32%만을 지원받았는데, 상기의 학생 수 비율 20.8%와 연계해보면 학생 1인당 정부의 교육 재정 지원액 규모가 다른 고등교육기관의 지원액에 비하여 35.2% 정도에 그치는 열악한 재정 지원 환경에서 고등교육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4).

표 7. 전체 대학 대비 전문대학에 대한 연도별 정부 재정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

연도별	전체 대학 지원액	전문대학(국·공·사립 전체)		사립 전문대학	
		지원액	전체 대학 대비 지원 비율	지원액	전체 대학 대비 지원 비율
2011	6,726,833	492,785	7.32	461,461	6.86
2010	5,618,357	393,765	7.01	361,159	6.43

<표 계속>

연도별	전체 대학 지원액	전문대학(국·공·사립 전체)		사립 전문대학	
		지원액	전체 대학 대비 지원 비율	지원액	전체 대학 대비 지원 비율
2009	5,446,474	375,170	6.89	344,582	6.33
2008	4,517,366	291,934	6.46	257,783	5.71
2007	3,795,031	210,169	5.54	179,611	4.73

출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4)

이러한 전문대학에 대한 열악한 재정 지원은 전문대학에 이미 존재하는 교육시설과 교육인력,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경험 등의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교육기관에게 중복 투자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교육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4년 기준으로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 교육예산이 9조 1,903억 원인데 비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은 2,93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9%(국가장학금 제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게 재정 지원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의 결과로 전문대학의 입학 정원까지 감축된다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려는 전문대학의 역할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리라 판단된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폴리텍대학에 투자하는 비용과 교육부의 전문대학 지원금을 비교하면 <표 8>과 같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4). 폴리텍대학은 전문대학에 비하여 학생 1인당 국고 지원금이 3.8배에 이르고 시설 투자비는 10.6배에 달한다. 정부의 신규 분야 투자에 앞서서 기존에 투자한 전문대학의 시설과 교육 인력을 이용하여 지역적인 특성과 다양한 현장 인력의 수요에 맞는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적절한 규모로 재정 지원을 한다면 교육에 대한 정부 기관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적은 비용을 지원하면서도 산업현장에 필요한 고급 기술인들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규모

(단위: 명, 천 원/연간)

항목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비고
재학생 수	484,299	14,175	
학생 1인당 교육비(학생등록금 포함)	7,841	10,324	1.3배
학생 1인당 국고지원(국가장학금 포함)	2,094	8,024	3.8배
학생 1인당 국고지원(교육환경개선비)	263	2,807	10.6배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각목명세서.

5. 전국적 수준에서의 인력 수급계획 수립

전문기술인력의 교육은 지역별, 전공 분야별, 산업단지 분포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전문대학이 조정을 결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도 부합하고, 산업단지에도 적절한 전문기술인을 연결시켜 수급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수도권 전문대학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산업단지 주변의 대학이 이와 관련된 학과를 특성화하도록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 즉, 지역 거점 전문대학을 지정하고,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교 부지, 건물, 교수진 등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특화 방안은 지역 자치단체와의 협력하에 산업체-교육기관-공공기관-정부부처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산업-교육 특별 융합지구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대학별로 고유의 전통적인 강점 분야(계열, 학과 등)가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교육부가 구상 중인 대학 평가는 해당 지표 결과들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5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어느 대학에 대한 사회적 평판과는 전혀 다른 평가 결과일 수 있으며,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쌓여온 해당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경험치와 괴리될 수도 있다. 따라서 평가 기준에 맞게 진행된 평가 결과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의 위상을 손상하지 않고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평가 결과는 최소한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6. 대학 구조개혁 추진의 사회적 합의

구조개혁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지급 제한 등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중요한 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서 대학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객관적 근거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이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법적인 토대가 만들어 진 뒤에는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평가에 대한 방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총장 세미나, 2014).

현재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문대학 구조개혁의 평가 지표는 10개 영역, 23개 항목, 3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9월 30일 평가지표(안) 기준). 그런데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교육역량 강화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기관평가인증, 재정지원제한대학,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등 여러 종류의 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각 지표들의 가중치도 다르다. 따라서 다른 평가에서 획득한 지표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든지, 평가 지표의 숫자를 과감히 줄여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단순화하여 필수 지표를 특별히 선정하고, 특정 점수 이상이면 모두 통과(Pass)되고 그 미만은 탈락(Fail)시키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평가 작업에 참여하는 수 백 명의 평가자들과 관련해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 보장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전문가 평가 그룹들은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대학 자체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운영의 부작용을 척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역할 분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고려되고 있는 평가 지표의 기간도 지난 3년 내지 5년 전 과거의 실적을 반영할 예정인데,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구조개혁의 목적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필수 핵심 평가 지표를 먼저 제시하고, 평가 지표별로 평가대상 기준일 및 기간을 정하며 최근 실적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할 필요도 있다.

Ⅲ. 제언


현재의 대학 구조개혁은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수의 감소에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필요성이 인정된 시점이므로 구체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요약된 주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조개혁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구조개혁 제 1주기는 전체 전문대학으로 보았을 때 이미 목표한 정원 감축을 거의 이루었으므로 구조 개혁의 적용 시기는 제 2주기부터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전문대학의 구조개혁은 설립주체, 소재지, 대학의 유형과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의 수요 예측을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구성은 대부분 사립 전문대학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그런데 현재 고려되고 있는 평가지표안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진행할 경우에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국공립과 사립, 남여공학과 여자대학 등의 특징에 따라서 그들 고등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된다.

또한 전문대학의 구조개혁의 방향은 전국적으로 분포된 다양한 산업 분야별 전문인재의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이 정착 되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산업 분야에 취업할 때, 최소한의 고급기능인에 대한 수요 예측 및 대학의 교육기능 확장성에 근거한 종합적인 프레임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구조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의 대학 입학 부분만이 아니라 졸업 후 취업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개혁 대상 교육기관을 전문대학과 일반 4년제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금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특별법 등에 의해 고등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모두 포함해서 구조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고등직업교육 분야에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 양성의 실질적인 중추 역할을 해왔던 전문대학이 기존의 교육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복 투자를 피하고 개선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대학 위주의 고등직업교육 단일 체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법적인 체계와 정책적인 고려, 경제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전문대학 구조개혁이 진행될 때 비로소 교육경쟁력 강화라는 구조개혁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 양성이라는 고등교육체계가 개혁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발전한 미래 산업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4. 9. 25). 장년 고용 종합대책 발표.
- 교육부(2014. 1. 29).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_____(2013). 전문대학 육성방안, 2013. 7. 18.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2014).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2014. 4. 30.
- 이승우(2014). 심층대담, 지방 전문대학 입장도 최대한 고려, 한국대학신문, 2014. 9. 15.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2014).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4). 대학의 현안 및 쟁점 과제 발표, 대학발전총장위원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4.).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역할과 과제, 보고자료, 2014. 9.